

# 국민의당 전북 총선후보 다음주말 확정

## 15~17일 지역별 여론조사 거쳐 주말이전 최종 발표 예정

더민주주의 2차 컷오프가 발표되면서 내부 대진표 움직임 점차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당전북도당 총선 후보들에 대한 실무에도 이르면 다음 주 경협할 예정이어서 후보들의 손에 땀이 배고 있다.

더민주주의 중앙당은 10일 최규성(김제부안)·강동원(남원임실순창) 의원 등 5명을 공천에서 배제하는 2차 컷오프 명단에 이름을 발표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밝혀진 더민주주의 출전 선수는 전주갑 김윤덕,

전주을 이상직·최형재(경선), 전주병 김성주, 정읍고창 하정열 남원임실순창 박희승, 김제부안 김춘진 완주진안무주장수 박민수·유희태·안호영(경선)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군산과 익산갑·을 3개 선거구 후보는 다음 주 초반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더민주주의 측은 야권 텃밭인 전북 지역 출전 명부가 속속 발표되자 국민의당 역시 대진표 골격을 잡아가고 있다.

국민의당 전북도당 관계자에 따르면 4·

13 총선 지역구 분구와 조정 지역 공천신청자들에게 대한 서류 및 면접심사를 최근 완료했다. 이번 국민의당 총선 예비후보자들의 평가는 서류심사와 면접 70점, 여론조사 30점으로 구성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르면 내주 초반 각 선거구지역에 대한 단수 또는 경선 지역을 발표한 후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선지역은 2~3배수로 압축될 전망이다. 해당 예비후보를 상대로 15~17일 사

이에 지역별 여론조사를 거친 후 이르면 다음 주말 이전 지역별 공천 후보를 최종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총선은 선거구획정 지연 때문에 모든 선거 관련 일정이 늦춰지다 보니 제대로 된 후보검증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향후 탈락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국민의당과 더민주 당간 야권 분열 구도 속에 경쟁력을 갖춘 후보 고르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다음 주면 모든 경선일정이나 후보들의 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민형기자

## 4.13 선거 RUN·RUN·RUN

### 정동영 예비후보, "누리과정 예산편성 적극 나서겠다"

국민의당 정동영 국회의원 예비후보(전주병)는 9일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 누락으로 가정어린이집의 운영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과 관련 국회에 입성하면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이날 전주시 어린이집 연합회 대의원 총회 및 신년 하례회에 참석해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누리과정 예산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최우선 순위로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예비후보는 또 "누리과정 예산은 청와대 영수회담에서 1순위로 다루어야 할 중요한 의제"라며 "현재 전주 관내 어린이집 750여개 중 가정 어린이집이 457개소가 있는데, 2015년에 재정상 어려움으로 지난해 20여개가 문을 닫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예비후보는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박근혜 정부와 싸울 수 있도록 진정한 야당에게 힘을 실어 달라"고 호소했다.

/신광영기자



## 국민의당, 더민주 2차 공천 관련 "교묘한 짜집기 명단" 혹평

국민의당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의 2차 공천결과 발표와 관련, "기득권 핵심을 이루는 친노 486 인사 중 성골은 그대로 살아 오고 일부 눈 밖에 난 인사들은 처단 교묘한 짜집기 명단"이라고 혹평했다.

국민의당 김정현 대변인은 이날 더민주의 공천결과 발표 직후 논평을 내고 "전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흔적이 역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역 경선지역의 경우 당의 뿌리와 관련된 인사들은 내몰렸다"며 "공천자 대다수가 친노 영향권 내에 있는 인사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성주기자

## 새누리당 2차 공천결과 경선 대상 현역 11명

### 친박계 이현승 등 5명·비박계 박명재 등 6명

새누리당이 10일 발표한 2차 공천결과를 살펴보면 31곳의 경선 실시 지역 중 현역 의원으로 경선 대상에 오른 인사는 총 11명이다.

이중 친박계 인사는 이현승(부안 진을) 유재경(부안 수영) 정수생(경북 경주) 안홍준(경남 창원마산회원) 박대훈(경남 진주갑) 등 5명이다.

비박계는 박명재(경북 포항남울릉), 김광림(경북 안동) 김재경(경남 진주을) 이군현(경남 통영고성) 여상규(경남 남해하동사천) 김한표(경남 거제) 등 6명이다.

이들 11명의 현역 중 전직 국회의원과

맞붙는 인사도 있다.

부산직을의 이현승 의원은 전직 의원인 이성권 이종혁 예비후보와 3표전을, 김광림(경북 안동) 의원은 권오을 권택기 두 전직 의원을 포함해 이삼걸 예비후보까지 4표전을 치른다.

또 박대훈(경남 진주갑) 의원은 홍준표 경남지사의 오른팔 최구식 전 의원과 맞대결 경선을 앞두고 있다. 한편 지난 1차 공천 때는 8명의 현역 의원이 본선에 직행하지 못하고 경선 무대에 올랐다.

나성민(부산 진주갑), 김희정(부산 연제), 이현재(경기 하남), 김기선(강원 원주

갑), 이강후(강원 원주을), 이철우(경북 김천), 박성호(경남 창원의창), 김성찬(경남 창원 진해) 의원 등 8명이다.

반면 원유철(경기 평택갑), 김정훈(부산 남갑), 김태훈(충남 보령서천), 서용교(부산 남을), 유의동(경기 평택을), 정용기(대전 대덕), 조경태(부산 사하을), 이주영(경남 창원마산합포) 의원 등 8명은 경선없이 본선행 공천 티켓을 거머쥐었다.

이날 2차 발표에서도 이진복(부산 동래)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홍문표(충남 홍성 예산) 의원 등 3명이 공천을 확정지었다.

이로써 현재까지 공천을 확정받은 현역 의원은 총 11명이고, 경선 무대에 오른 현역 의원은 19명으로 결정됐다.

/이성주기자

## 국민의당 전북도당 내일 신인재 양성 간담회 개최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전북지역 신인재 양성에 나선다.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전주한옥마을에서 안철수 공동대표 및 전북도당 예비후보를, 당원, 시민 등이 함께하는 '일자리 햇빛정책과 신인재 양성' 간담회를 갖는다.

도당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맑은 진보청산, 부패 척결, 새로운 인재양성'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국민의당이 도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새로운 인재 양성을 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전했다.

/신광영기자

## 전북지역 저명 대학교수들 김연근 예비후보 지지 나서

전북도 청년 810인의 지지선언에 이어 전북지역 저명 대학교수들이 김연근 익산(을) 국민의당 예비후보를 지지하고 나섰다.

11일 도내 40명의 대학교수들은 성명서를 통해 "법과 제도와 정책은 시민과 함께, 시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그의 믿음, 그리고 이를 실천에 옮긴 그의 의정활동과 시민활동을 통해 보여준 그의 삶의 역사를 깊이 신뢰하고 있다"며 "도민들이 함께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변화의 주인

공으로 참여하는 국민에 의한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 그리고 국민의 정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동안 좁은 그 길을 걸어왔던 김연근 후보가 선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이 사는 길, 지역이 힘을 갖는 방법, 그리고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전북의 노인정책 등 공약으로 내건 김후보의 진정성있는 연구에 또 한 번 신뢰의 찬사를 보내는 바이다."

그의 핵심정책이 실현돼 대대적인 생활속 혁신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김 후보가 새로운 국회의원으로 선출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면서 "특히 그가 지역발달의 대안적 실현과 연구에 주목했던 점을 평가하며, 그러한 노력들이 지역 내 중요한 정책들과 결합해 '위기의 지방', '위기의 전북'을 넘어서는 출구를 만들어가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신광영기자

## 장세환 예비후보, 완산소방서 현장출동 체험

국민의당 전주을(효자·삼천·서신동) 장세환 예비후보는 10일 전주 완산소방사에서 소방직원들과 함께 직접 소방차를 타고 현장 출동에 나서는 등 소방공무원 활동을 체험했다.

장 예비후보는 이날 완산소방서를 방문해 제대한 서장을 비롯한 간부 및 직원들을 만나 완산소방서 현안 사업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 뒤 방화복과 공기호흡기를 착용한 채 소방직원들과 함께 소방차를 타고 현장 출동상황을 점검했다.

장 예비후보는 "국회에 진입하면 소방인력 부족 및 장비 노후화 해소를 위한 소방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고민형기자



## 이광승 예비후보, 오늘 선거사무소 개소식

국민의당 이광승 국회의원 예비후보(전주갑)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11일 오후 3시부터 전주시 완산구 한두령 2길에 위치한 115빌딩 2층에서 열렸다.

이날 이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은 김성환씨(방송연예인)의 사회로 진행되며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을 비롯하여 정태철 고문과 김관영 국민의당 전북도당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한때 전국 최대 도시중 하나였던 전주가 지금은 30대 도시에 겨우 들어갈 정도로 몰락해 있다"며 "이는 정치가 제 역할을 못했던 결과이자 국회의원 자신들만 소중하지 전주의 전북발전을 위해 정치생명을 걸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북정치와 무기력한 야당을 바꾸고 무능한 정권을 교체하는데 혼신의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코아그럼 총괄부회장과 코아백화점 회장 등을 역임하며 쌓아온 실무경력의 경험을 살려 위기에 처해있는 지역경제를 회생시키는데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신광영 기자



## 김광수 예비후보, 지방의원 100% 주민공천

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의 예비후보(전주갑)가 지방의원 100% 주민공천제 실시를 4.13총선 공약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김 예비후보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조항을 인용한 뒤 "주민들에게 모든 공천권을 돌려주자는 취지의 '상향식주민공천제'를 통해 공천 과정에서 소수 권력자나 계파의 영향력 전혀 미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의적인 '계파정치'를 끝내야 한다"며 "지역 주민이 공천권을 부여받고 공천에 참여해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이 지방자치 취지에도 부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예비후보는 "지방정치까지 중앙정치의 논리를 대입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면서 "낙산 공천이라는 오명을 불식하고, 지역주민이 원하는 인재를 주민들이 상향식으로 공천할 수 있도록 해야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데 한 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광영 기자

## 양현섭 예비후보, 국민소환제·전북예산확보 공약

새누리당 양현섭 국회의원 예비후보(전주병)는 10일 국민소환제, 전북 예산확보 등 주요 공약을 발표했다.

양 후보는 먼저 "국회의원의 경우 선거단체장이나 지방의원과 같은 똑같은 선출직임에도 불구하고 소환의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이것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을 위배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법 앞의 불평등'을 '법 앞의 평등'으로 전환시켜 법치주의의 완결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 후보는 "전북예산확보에 있어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전북예산확보에 중추적 역할을 다 할 것이다"고 약속했다. 또 "어르신 의료복지 시설을 위한 치매예방 재활센터 건립, 공공임대 행복주택 공급 확대, 서민복지를 위한 사회복지예산확충 등을 통해 사회가 안정되고 희망이 넘치는 전북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신광영기자



## 전정희 예비후보, 내일 선거사무소 개소

국민의당 전정희 의원(익산)을 예비후보(이) 오는 12일 오후 5시 어양동 엘더타운 3층에서 20대 국회의원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한다.

전 의원은 지난 7일 국민의당에 입당, 익산시(을) 국회의원의 선거에서 국민의당 예비후보들과 공정한 경선을 치를 것을 약속했다.

전정희 의원은 "지난 연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최악의 여론일 때 60년 정통민주당을 지키겠다고 당에 잔류했던 저에게 밀실 전략공천을 추진해 납득할 수 없는 기준으로 공천에서 배제시켜 익산시민들의 명예를 짓밟았다"면서 "더민주의 컷오프로 불출마를 강요했지만, 반드시 돌아오는 익산으로 만들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깰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는 최근 국민의당에 입당한 박지원 의원, 김관영 전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중앙 및 호남 정치권 인사가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 곽인희 예비후보, "악의적 흑색선전 강력 대응"

국민의당 곽인희 예비후보(김제·부안선거구)는 악의적으로 왜곡 보도한 기자들과 네티즌들을 무더기로 경찰에 고발해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인물과 정책 경쟁으로 김제·부안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야 할 경선과정이 구태선거운동로 더이상 얼룩져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곽 후보는 과거 자신의 재판과 관련, 억울한 사법피해로 형사보상금까지 받고 무죄판결난 사인을 악의적인 흑색선전과 후보 비방에 악용해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며 상대 후보 진영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곽 후보는 "이미 무죄판결을 받고 억울한 사법피해에 대해 형사보상금 전액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한 바 있다"고 말하고 "얼마 남지 않은 경선 기간중이라도 사실을 왜곡하는 흑색선전과 후보비방에 대해 법적 조치 등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안=이옥수 기자

## 김종희 예비후보, 내일 선거사무소 개소식

김종희 국민의당 예비후보(김제·부안 선거구)가 12일 오후 2시부터 김제시 부안사거리 YMCA 새마을금고 2층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의 개소식을 갖는다.

이날 개소식에는 정동영 전 장관, 정태철 전 상임고문, 유성열 의원, 김관영 전북 도당 위원장 유균 전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원장, 김진항 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장 배우 전원주 등 중앙과 전북의 유력 인사 및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김 후보의 총선 승리를 기원할 예정이다.

"주민들과 함께 하는 정책 콘서트"로 진행될 이번 개소식은 박찬길 씨의 맑고 깨끗한 색소폰 선율로 식전행사가 이뤄진다. 김 후보는 "기존 일방적인 개소식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소통의 장을 가질 것"이라며 "이번 총선 승리를 통해 정권교체를 위한 밑일이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제=곽노태기자



## 김원중 예비후보, 오늘 청년들과 공개토론회

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 김원중 예비후보는 지역 20대 청년 유권자들과 공약을 놓고 1대1토론회의 맞장토론회를 갖는다.

김 예비후보는 11일 오후 2시부터 선거사무실에서 남원·임실·순창 20대 유권자 60~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대기에게 청년정책 물어먹기'를 주제로 청년들과의 공개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날 청년들과의 토론은 '어르신들에게는 안심을 청년들에게는 희망'이라는 김 후보의 제2차 공약발표 이후 지역현안과 발전방안에 관심을 가진 지역 청년들의 다양한 문의로 마련됐다.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정치에 대한 부정적인 광경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표출리즘에 찌들어 있는 청년정책 바로세우기의 일환이기도 하다.

청년들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의 청년정책과 청년공약 등에 대해 묻고, 듣고, 토론하며 개인적인 고민상담도 같이 하게 된다.

/남원=유영철 기자



## 고상진 예비후보, "사회적 약자 위해 입법활동"

4·13 총선에서 전북 익산갑 지역구에 출마한 고상진(국민의당) 예비후보가 '약자와 중소기업,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고상진 예비후보는 10일 익산시청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복지·농업·청년 등을 위한 입법 활동을 전개해 익산과 전북, 대한민국의 희망이 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고 예비후보는 먼저 "노동자와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영세 자영업자 소액 카드수수료 면제, 노동법 철폐, 대기업 사내 유보금을 활용한 중소기업과 청년 창업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빈곤 등복지 실현 법 개정과 청년 구직 수당 및 해외 취업·지원, 청년 농·축·수산업 창업자금을 통해 청년층과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공언했다.

또 "중소기업 육성과 역량강화를 위해 FTA 대응 농산물 최저가격제 도입 등으로 농도 전북을 수호하겠다"며 "농민·농업·농촌보호, 국가식품물류센터를 통한 전북 농산물의 세계화에 앞장서겠다"고 역설했다.

고 예비후보는 "고교 무상교육 실시, 맞춤형 진로 교육,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한 아동 수당도입, 교육혁신지구 지정, 농어촌 교육복지 강화로 뒤쳐지는 아이들이 없는 평등한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피력했다.

더불어 "어르신과 장애인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해 어르신 일자리 창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장애인 의무고용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희귀난치병 환우와 가족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

